

SBS 사회공헌활동 '2012 SBS 사회공헌보고서' 발행

SBS 미디어그룹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내용을 종합 정리한 '2012 SBS 사회공헌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2012 SBS 사회공헌 보고서'는 SBS의 사회공헌 체계, 국내외 및 SBS그룹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및 역대 모금액 등이 정리되어 있어 SBS의 나눔 실천의 히스토리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사회공헌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SBS는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갑니다'라는 비전 아래 '행복한 미래', '즐거움 나눔'을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가치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4가지 사업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2012년 SBS 희망학교' 사업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린이 대상 2개 사업으로 재편된 의료지원사업(Smile Again)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Dream With) 소개, 1997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모금 방송을 통해 2012년 말 현재 1,625억원의 모금을 조성하여 사회공헌 사업에 동참하고 있음을 담았다. '2012 SBS 사회공헌 보고서'가 필요한 사우는 SBS 희망내일위원회 이슬기 과장(구내번호5457)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임직원 봉사활동



8월 14일(수) 제작본부 아나운서팀 11명의 아나운서가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에 나섰다. 김소원 아나운서를 비롯한 유정미, 김주희, 장예원 아나운서는 장애인들에게 생애할 시 방송 영상제작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마음으로 목소리를 나누었다.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로 제작된 시 낭송 영상은 전국 57개 부대의 디지털문화관에서 20만 장병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한편 SBS 최영주 아나운서를 비롯한 최영아, 박은경, 윤현진, 김지연, 정미선, 이윤아 아나운서는 강원도 무지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30여명의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점토 만들기, 스피드 게임을 하며 그림을 그리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보도본부 시민사회부는 6월 18일(화) 노량진에 있는 '한민족복지재단'을 방문하여 장난감 만들기 봉사활동을 시행하였다.



탐이 버스를 지원해주었다.

'나눔행복 SBS 봉사동아리' 7월~8월 봉사활동

SBS 미디어그룹 임직원 봉사동호회 '나눔행복 SBS 봉사동아리'는 7월 14일(월) 음성꽃동네를 찾아가 봄이 불편한 노인인과 장애인, 임양을 기다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발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날 40명의 회원들이 600명의 컷과 이발을 하면서, 부족한 실력에도 최선을 다해 서로를 격려하며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8월 23일(금)에는 은평구에서 80대 노모를 모시고 있는 60대 장애인인 집을 방문하여 지하방 집수리 봉사를 하였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 가족의 행복입니다. 지금, 바람에 두 바퀴를 실어보세요

자전거 동호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운동의 생활화를 기반으로 모인 동호회입니다. 자전거로 출퇴근은 물론이고 주말을 활용해 도심에서 떠나 파톤치드 그윽한 어머니의 품속 같은 산에 들어가서 가슴 터지도록 페달을 돌려 오르막을 오르며, 바람을 가르며 내리막을 달리는 기분이야말로 힐링 그 자체가 아닐까요? 저희 동호회의 주요 활동은 소개하지만 가까운 행주산성, 지양산, 임피산, 수리산 등을 중심으로 라이딩을 하고 있고, 실제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안타까움이 없지 않지만 3명~5명 정도의 핵심 회원과 함께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30명입니다. 회원들의 반응이 좋았던 곳은 정선 동강 라이딩이었습니다. 45km의 거리를 탐험하며 달렸고, 눈으로 보고 가슴에 담은 산과 강과 풍경은 천국이 아니었다 합니다. 몇몇 회원은 너무 힘들어서 용달을 부를까 했지만.....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럭셔리한 스타일의 오토캠핑과는 대조적으로 자전거로 보다 멀리, 보다 넓게, 보다 즐기는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는 바이크패킹(Bikepacking)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회장 : SBS아트웍 김윤정 자문역 총무 : SBS뉴스팀 영상제작팀 이현복 팀장)

바쁜 업무 중에 나를 가꾸는 시간 SBS 이·미용실



목동 SBS방송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이발소와 미용실은 작년 11월 원장이 바뀐 뒤 보다 저렴한 가격과 세심한 서비스로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주로 업무 중에 머리 손질이 필요한 직원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사원 가족들도 많이 오고 있다. 퍼머와 컷트, 염색, 이발과 면도, 인마까지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이발과 미용을 받을 수 있다.

- 이용 시간
 - 매주 월~금 오전 08:30~ 저녁 19:00 (토·일, 공휴일, 방송의 날 등 방송국 관련 휴일 시 휴무)
- 이용 정보
 - 이발+면도(서비스) 10,000원 / 면도 8,000원 / 인마 30,000원(부터 예약)
 - 컷트 10,000원, 여자 12,000원 / 샴푸 5,000원
 - 퍼머·염색 각 30,000원(부터 매니큐어 별도)
- 예약 전화 : 이발소(내선 5248), 미용실(내선 5249)



6면은 사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공간입니다. 가족 여행이나 미담, 기교, 사연을 담은 사진, 사보에 대한 의견 등을 사보 담당자(PR팀 서희정)에게 제보해 주시면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사우 기고 | '8년 만의 평양 방문'

제작본부 시사다큐팀 오기현 부장

지난 8월 14일(수)부터 17일(토)까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이사직자로서 8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오기현PD의 방북기

예나 지금이나 평양공항은 적막했다. 넓은 공항에 조선훈향기 2~3대만 덩그러니 서 있었고, 새로 공사 중인 청사에는 노동자 몇 사람만이 건축자재를 옮길 뿐, 그 익숙한 기중기의 굉음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선입견이 깨지는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시내를 들어서자 부쩍 늘어난 자동차 행렬과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택시들이 변화를 대변했다. 새로 등장한 평양택시는 외관상 남한택시와 차이가 없다. 우리로 치면 '기아 모닝'에서부터 '쌍용 카이런'까지 사이즈도 다양하다.

변화의 조짐은 여성의 옷차림에서도 확인된다. 평양역 앞 영랑거리나 김일성광장 앞 승리거리에서 바지를 입은 여성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의 바지는 경계를 허무는 정치적 코드이자 가치관의 변화를 상징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바지를 입고 공식석상에 등장하면서, 북한여성들의 바지금지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한다.

통금 힐을 신은 여성이 심심찮게 눈에 띄는 것도 새로운 변화다. 노동을 중시하는 생활 풍습과 '신발은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김정일 위원의 교시로 보면 통금 힐은 매우 불량한 차림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보는 사람만 아슬아슬하지, 정작 평양차녀들은 날렵한 발걸음으로 통금패션을 뽐내며 만수무거리를 확보한다. 이미 중독이 되어버린 듯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시선을 고정하고 열심히 손가락을 놀려대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것도 전에 없던 풍경이다.

북한에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도 놀랍다. 작년부터 처음 활동을 시작한 모란봉악단의 약기조 조장(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선우혁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그녀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젊은이들이 공연장에서 앞자리 경쟁을 벌이고, 그녀의 액세서리를 따라 하는 팬들이 많다고 한다.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 이후에 일어난 변화이다.

우리와는 가까워질 수 없이 늘 평행선을 달리는 도시라는 느낌을 가졌던 평양, 그러나 이번에는 도시 곳곳에 공간의 공간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QuizQuiz 988호 사보 내용을 참조해서 퀴즈의 답을 찾으세요!

■ 정답을 아시는 분은 9월 6일(금)까지 사보 담당자(PR팀 서희정)에게 사내 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5명의 사주에게 수예당 화과자를 상품으로 드립니다.

- 6월 26일(수) 방송되어 영국의 올세레이스라는 이색적인 대회를 소개하고 이에 도전하는 출연자들의 후원을 보여주며 웃음과 감동을 이끌어내 호평을 받았던 파일럿 프로그램 제목은?
- ① 슈퍼 매치 ② 월드챌린지 우리가 간다 ③ 유행의 발견 ④ 행진 친구들의 이야기

▲ 987호 정답 : ④ 최후의 권력

사내프리즈 기획실 광고관리팀

광고의 영업부터 관리까지 토털 커뮤니케이션

"요즘 광고 어떤가요?" 사주들에게 항상 듣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회사수입의 비중과 관심이 큰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광고관리팀으로,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재 심의에서부터 광고정책, 판매제도, 유관기관 및 협력부서와의 업무 협의, 광고계수 등 전반적인 광고 업무를 관리하는 광고관리파트가 있고요, 미디어크리에이트(이하 미크)에서 대행하고 있는 일반광고와는 달리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협찬파트가 있습니다. TV와 라디오의 협찬 및 캠페인을 판매기획에서부터 영업, 소재심의, 운영, 판매관리, 수금까지 관리하며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밤낮없이 뛰는 파트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M편집실에서 늘 긴장 속에 근무하는 광고운영/편집 파트가 있는데요, 미크를 통해 판매된 광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운영하고 편집, 송출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9층 사무실에 9명, 7층 TV-CM편집실에 7명, 11층 R-CM 편집실에 2명 등 파견직(3명)포함해 총 18명이 각 파트별로 다르게 근무하지만 유기적 관계 안에서 서로 합심하여 매출 증대와 SBS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광고관리팀의 현안으로는 코앞으로 다가온 가을 얼프르트 판매(광고 장기간 계약물)와 내년에 있을 바이벤트(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등입니다. 좋은 실제로 사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조사 소식 ■ 애도합니다
박재만 방충협회 사무총장 빙모상(8월 17일)

사보 987호 상품 수령인 명단

★ 당첨을 축하드리며 사보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정광현 홍성돈
- (사내프리즈) 편성전략본부 편성팀 (사주 기고) 편성전략본부 리스센터 PR팀 김성환
- 홍근영 안로빈
- (사보 아이디어) 제작본부 라디오ICP 정태희 부장 경영지원본부 뉴미디어개발팀 차지현
- 수예당 화과자
- (퀴즈 당첨자) 편성전략본부 리스센터 심의팀 공정준 보도본부 보도지원팀 신진미 SBS아트웍 아트디렉팅 박규원 SBS뉴스팀 중계기술팀 김중환 SBS콘텐트즈는 미디어기획팀 강은지



제988호 2013년 8월 29일(목) 발행 SBS 편집 PR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전화 02/2113-3304 팩스 02/2113-3299 @SBSNOW



한국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세 번째 신화가 시작된다

국내 3대 기획사 YG, SM, JYP와 함께 제작해 화제를 모으며 한국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K팝스타>가 8월 17일(토)부터 시즌3 예선전을 시작하였고, 24일(토)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예선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프로그램의 인기를 실감케 하였다. 오는 9월 중 예선을 마치고 11월 11일 경 첫 방송될 예정이다. <K팝스타 3>를 이끌어갈 제작본부 박성훈 차장대우의 각오를 들어보았다.

Q <K팝스타 3>를 기획하며 이전 시즌과의 차별화를 위해 중점을 둔 요소는 무엇인가?

A. "결국 오디션 프로그램은 '사람' 싸움입니다. 실력자를 찾아 스타로 만들어 낸 프로그램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포화상태에 이른 오디션 프로그램들로 인해 전 세계 주요도시들의 인제는 씨가 말라버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K팝스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그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찾지 않았던 지역들에서 예선을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방문한 미국 시카고, 애틀랜타 등지에서 폭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다락에 숨겨져 있던 보물 상자를 얻 것'과도 같은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실력자가 있는 곳은 지구 어디라도 찾아간다는 목표로 전 대륙의 국가들에 소규모 오디션 팀들을 분산 파견하는 '찾아가는'..."

<정글의 법칙 in 사바나> 다시 아프리카로 향하다

지난 8월 18일(일) 경기도 가평군 김병만의 자택에서 <정글의 법칙 in 사바나>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기자간담회는 신인 부족원 소개 및 병만족과 함께 하는 다과회로 진행되었는데, 기존 멤버인 김병만, 노우진, 류담과 함께 새로 합류한 김원진, 한은정, 이규환, 정태우가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연출을 맡은 제작본부 변진진 차장대우는 "텔레비의 콘셉트가 '극'이었는데, 이번 편은 '차별'..."

폭넓은 소재와 다양한 재미, SBS 드라마의 저력이 빛난다

주요시각 동시시대 1위 굳히기

8월 7일(수) 첫 방송 이후, 로맨틱코미디와 호러가 성공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주군의 태양>은 매회 자체최고시청률을 경신하며 수목드라마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한 화마다 원혼에 얽힌 에피소드를 풀어가는 한편, 주종원이 과거에 겪었던 납치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이 전개되며 흥미를 더해가고 있다.



황금의 제국 한국 경제사의 그늘을 날카롭게 묘사하며 호평

월화드라마 <황금의 제국>도 성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주요 인물들의 암투와 배신, 반전을 거듭하는 스릴로 긴장감을 높이며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찬사와 함께 8월 20일(화) 방송에서는 11.7%(닐스코리아, 전국기준)로 자체최고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췄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착한 일일극에 대한 시청자의 성원 이어져



가족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 간의 우애를 따뜻하게 그려나가는 힐링을 주는 일일드라마 <웃남이 주의>는 집필을 하고 있는 정지우 작가가 팬들의 도시락 응원을 받는 등 시청자의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

결혼의 여신 인물들의 갈등 본격화, 극적 전환으로 눈길



네 여자가 겪는 다양한 결혼의 문제를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주말 특별기획 <결혼의 여신>은 이해와 사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 대한 은혜의 복수가 시작되며 매회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전지현-김수현-박지은 작가-장태우 PD 최강 드림팀이 온다! 올 겨울 방송될 SBS드라마스페셜 캐스팅 확정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이 올 겨울 방송 예정인 SBS 드라마스페셜 <해피투게더>의 주연으로 캐스팅된 것은 물론, 박지은은 연출 장태우에서 각각 톱 여배우 전승이 역과 외계에서 400년 전 조선에 온 뒤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는 신비의 남자 도민준 역을 맡았다. 최근 영화 <도둑들>과 <베를린>을 연이어 흥행시킨 전지현은 1999년 SBS 드라마 <해피투게더> 이후 14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가 성사되어 오랫동안 그녀의

TV출연을 기다려오던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드라마 <해를 품은 달>과 영화 <도둑들>,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연이어 히트시키며 2013년 최고의 핫한 스타로 떠오른 김수현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기 힘든 완벽한 외계남이라는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월의 신드롬>을 일으키며 45%가 넘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영

콜레 콜러온 당신>의 박지은은 작가와 웰메이드 드라마로 호평을 받은 <뿌리 깊은 나무>의 장태우 PD가 연출을 맡아 2013년 '최고의 드림팀'을 형성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제작 관계자는 "캐릭터에 잘 어울리고 적합한 최고의 배우들을 캐스팅하는데 집중했다.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시청자들에게 가슴 따뜻하고 유쾌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드라마로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방송예정인 SBS 드라마스페셜은 다른 행성의 두 남녀가 서로에 대한 불통과 오해와 위기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는 로맨틱코미디이다.

짜가자 간담회 개최

8월 19일(월) 목동KT 정보전산센터 아네스 웨딩컨벤션홀에서 <짜>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기존 커피 5명과 결혼 예정인 커피 1쌍이 참석하여 포토타임을 가졌고, 연출을 맡은 제작본부 남규홍 차장이 <짜>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미를 돌아보는 인터뷰를 하였다.

남규홍 PD >>>



"<짜>을 연출하게 된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다. 여기 참석한 기존 커피들 중 아기를 낳았거나 곧 출산 예정인 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저희 프로그램은 시작 단계부터 진정성을 앞세우고 좋은 짝을 찾아주겠다는 취지로 지금까지 진행해왔다. 시청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한 6쌍의 커피들이 이 프로그램의 가치와 진정성을 입증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성장할 때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 저희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제작하겠다. 오래된 프로그램일수록 애착이 깊어지고 부사지가 쉬우니, 항상 긴장하고 견제와 질책, 애정 어린 비판을 수용하고 정직하게 실천하겠다. <짜>은 이제 중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항상 시청자의 꾸준한 질책과 지지가 모두 필요하다. 잘 만들었으니 지켜봐 달라. 감사하다."

SBS 예능 최초로 무삭제 생방송 토크쇼!



<화신>이 파격적인 여름특집을 준비해 화제가 되고 있다. 8월 27일(화) <화신>은 'the 화신 Live'라는 제목 하에 90분 특집으로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100% 리얼 생방송 예능 토크쇼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생방송 프로그램이 한 몫을 담당했지만, 상당 부분 편집에 기대어 왔던 예능 토크쇼에서 생방송을 시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다. <화신> 제작진은 이렇게 파격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화신> MC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꼽았다. 19금 등급의 새 지평을 연 '토코 신' 신동엽, 폭탄 돌진기 여신 김희선, 독설 마신 김구라, 그리고 집착 캐릭터 예능 끝나무로 손꼽히는 봉태규 등 네 명의 MC들이 과연 편집이 전혀 안 되는 생방송 토크쇼에서 어떤 돌발 발언과 행동을 하게 될지 방송 전부터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제작진은 "대한민국에서 생방송 토크쇼를 한다면, 현재 <화신> 네 명의 MC들은 최상의 조합이다"라며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한편, 방송 전 <화신> 홈페이지에서는 '4 MC 중, 생방송에서 누가 제일 사고를 칠 것 같은가?'에 관한 투표를 받았으며, 최근 새 앨범 'Let's Talk About Love'를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비행의 승리와 2013년 최고의 세시 아이콘 클라라, 한국공예교묘미의 대부 김준호와 김대희가 국내 최초 파격 생방송 토크쇼에 전격 출연하여 흡인력을 높였다.

신선한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각광



8월 16일(금)과 23일(금)에 걸쳐 선·후배 가수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인 파일럿 프로그램 <슈퍼매치>가 기존의 가요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화려한 경연을 펼치며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관객들은 물론 시청자에게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슈퍼매치>는 YB 윤도현, 이승환, 바비킴, 양희은, 이현도, CL, 김태우, 클레지아, 다이아믹 듀오, 김예림이 출연해 16일(금) 방송에서 선·후배가 짝을 찾는 과정을 보며 바라다보이듯 방송한데 이어, 23일(금)에는 각자의 색깔을 유감없이 과시하며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보여주었다. 특히 공연에 참여한 가수와 관객들이 '이제까지 음악 프로그램 중 사운드가 가장 좋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운드에 남다른 공을 들인 제작진의 노력이 돋보였다. 이러한 현장의 열기는 시청자들에게도 전달되어, <슈퍼매치> 1부는 <앵무> 마지막 방송 4.1%보다 1.1% 상승한 5.2%(닐스코리아, 전국 기준), 2부는 4.4%를 기록하였다. <슈퍼매치>의 연출을 담당한 제작본

부 박승민 차장대우로부터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시청자의 호평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았다.

박승민 PD | "<슈퍼매치>는 다양한 세대,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시청자와 함께 축제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다. 경연 현장에 있었던 관객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으며, 가수들도 긴장감을 내려놓고 무대 자체를 즐기는 분위기였다. 또한 출연가수 중 데뷔 42년을 맞은 양희은씨부터 이제 2개월이 된 김예림씨까지 폭넓은 연령대로 구성되어, 선·후배가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된 점이 시청자의 호평을 얻게 된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 여담이지만, 경연이 끝난 뒤 출연가수들과 회식을 할 때, 선·후배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하여 연출자로서 매우 뜻깊은 경험을 하였다."

진정성 가득한 리얼리티가 주는 감동 파일럿 프로그램 <심장이 뛴다>



연예인들이 소방관이 되는 과정을 담은 파일럿 프로그램 <심장이 뛴다>가 오는 9월 6일(금) 밤 11시 20분에 1부, 13일(금)에 2부를 방송한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타인을 구

조하는 소방관의 정신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줄 <심장이 뛴다>에는 이원종, 조동현, 박기웅, 전혜빈, 장동혁, 최우석이 출연하여 현직대원들과 함께 구조 활동과 화재진압활동을 펼쳐 풍성한 볼거리와 감동을 줄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4박 5일의 일정으로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소방안전센터에서 있었던 촬영에서 출연자들은 "나태하기만 했던 삶에 전환점을 마련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드챌린지 우리가 간다> 새로운 미션에 도전하다



지난 6월 26일(수) 방송되어 영국의 올채널에 도전하는 출연자들의 투혼을 보여주며 웃음과 감동을 주었던 <월드챌린지 우리가 간다>(이하 우리가 간다)가 또 다른 미션으로 돌아온다. 전현무, 백성현, 박효준 외에 이지훈, 이종수가 뉴캐슬로 합류한 <우리가 간다>는 8월 25일(일) 네덜란드로 출국하여 새로운 도전의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웃음을 찾는 사람들> 현장공개

8월 28일(수)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이 SBS등온동공개홈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새 코너 공개 및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원환 제작 총괄과 담당PD인 제작본부 박재용 차장, 김재혁 차장대우, 이영준 사주, <웃찾사> 개그맨들이 참석하여 새 코너 리허설 현장을 공개했다.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광복절 주간 특집 <아이들의 기원> 방송

SBS 라디오 최장수 프로그램인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 8월 17일(토) 광복절 주간 특집으로 '아이들의 기원'을 방송했다. 방송사 최초로 1980년대 안을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 민중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10대 소년 가수 강석연의 숨겨진 노래와 인생이야기를 통해, 당시 국제적인 스타였던 강석연의 노래가 우리 사회문화에 미친 영향을 메시지로 담아냈다. 광복 이전의 가수에 대한 기록이 미미한 대중가요계에 그대로 묻혀 버려진 보석 같은 가수 강석연을 발굴해, 아이돌 가수의 기원이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역사적, 문화적, 대중가요사적으로 풀어낸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유영미 아나운서는 '1인 1인 시스템'으로 아나운서와 PD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으며, 앞으로 도 시너지 전문 프로그램인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을 통해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고품질의 방송을 위해 연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파워FM 콘서트 <어쿠스틱> 성황리에 종료

펑크, 모던록, 힙합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뮤지션들이 출연한 파워FM 콘서트 '어쿠스틱'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프라이머리, 푸디토리얼, 김경원, 박주원의 진행으로 8월 13일(화)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어쿠스틱'이라는 공통분모 하에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었다. 마지막 날 공연은 8월 31일(토) 저녁 8시 파워FM에서 방송된다.



사내 소식

SBS '제 40회 한국방송대상' 10개 부문 선정

2013년 한국방송총회에서 주최하는 '제 40회 한국방송대상'에서 SBS가 작품상 4개, 개인상 6개로 총 10개 부문에 선정되었다. 작품상은 TV 기획보도 부문(SBS 8뉴스) <교통문화 개선 시리즈 - 양심불량 정치>, TV 다큐멘터리 부문 <최후의 제국>, TV 교양정보 부문 <금강산 이야기 Y>, TV 중·단편 드라마 부문 <추적자 THE CHASER>가 선정되었다. 개인상은 스포츠제작보도상에 보도본부 스포츠부 김형열 차장대우, 앵커상에 보도본부 편집1부 김성준 부장, 그 외에 작가상, 연기자상, 가수상, 문화예술인상 부문에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9월 3일(화) KBS홀에서 개최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2013년 상반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3회 수상!



8월 13일(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수여하는 '8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수상한 배려 - 귀족학과 반칙 스캔들' 편이 수상하였다. 이로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올해 상반기에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세 번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국방송협회, '방송의 날' 축하연 개최 예정

한국방송협회(회장 : SBS 우원길 사장)는 9월 2일(월) 저녁 6시 30분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 50회 방송의 날' 축하연을 개최한다. 이번 축하연에는 VIP와 3부 주요인사, 주한외교사절과 방송·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10주년 SDF 콘텐츠, 확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다양화 - 9월 초 자막 입힌 DVD와 온라인으로 공개



지난 5월초 알맹 2 보통, 제시가 알바 등이 강사로 나서 큰 호평을 받았던 2013 SDF 10주년 '명강연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SDF(서울디지털포럼) 사무국은 기존 서울 디지털 포럼 홈페이지(www.sdf.or.kr)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에서

탈피해 올해 최초로 고품질 SDF 콘텐츠를 유튜브와 네이버 TV캐스트, 유명 여대의 지식공유사이트인 'SNOW'를 통해서도 9월초부터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막을 입힌 SDF 10주년 DVD도 9월 초 사내외 배포될 예정이다.

SBS 시청자평가원 선임

8월 21일(수) 오후 5시 목동 SBS 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제 27차 시청자위원회' 본 회의에 앞서 2013년 신입 SBS 시청자평가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신입 평가원은 총 2명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강두선 전문연구원과 법무법인 '정세' 김승현 변호사이다.

8월 '나를 찾는 힐링 걷기' 실시 예정

SBS 임직원의 건강과 걷기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나를 찾는 힐링 걷기'가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 31일 대부도 해운길을 찾는다. 참가대상은 SBS 임직원 및 가족 40명이며, 아침·점심을 제공하고 신규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한다.

그룹 소식

SBS-SBS ESPN 손연재 출전 리듬체조선수권 생중계



SBS와 SBS ESPN은 8월 28일(수)부터 5일간 우크라이나에서 열리는 '2013 세계리듬체조선수권대회'를 생중계한다. 8월 29일(목) 새벽 1시 50분과 30일(금) 새벽 1시 10분부터 리듬체조 선수권 개인 종목별 결선을 생중계 하며, 30일(금) 밤 11시 20분부터 개인 종합 결선을 생중계 한다. 손연재가 메달을 획득할 경우 SBS ESPN은 31일(토) 오전 10시부터 손연재의 활약을 담은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다.

nickelodeon 스폰지밥이 들려주는 키즈클래식

클래식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주는 '스폰지밥이 들려주는 키즈클래식' 공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공연은 인기 캐릭터 '스폰지밥'과 클래식 음악으로 스폰지밥이 무대에 직접 출연, 악상스러운 목소리로 '모차르트', '슈트라우스', '브람스', '바하'와 그들의 명곡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준다. 본 공연은 9월 1일(일) 오후 2시에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90분간 진행된다.

연예기사 | '우리만 아는 방송 기술 이야기 ⑥'

방송과 IT보안, 막아야 산다.



SBS 방송을 IT는 우리가 지킨다

리'란 본사 TV기술팀에서 SBS의 '독수리 모형체'를 지칭하는 'IT 관리실'이다. 올해 초부터 사무 및 방송용 시스템의 IT보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SBS의 방송용 IT관리 시스템은 세 겹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제일 바깥 겹은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보안 네트워크다. 뉴스기사 작성 등 방송에 필요한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으며, 백신 등의 보안솔루션으로 임직원 PC를 24시간 지켜주고 있다. 그 안쪽엔, 방송제작용 보안 네트워크가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차단하고 있으며, 편집에 필요한 USB, 외장하드 등의 일부 장치만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안쪽은

주조설 및 방송 송출용 보안 네트워크이다. 핵심시설인 만큼 어떠한 외부의 접근도 허용하고 있지 않는 Clean Zone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해커들은 이런 튼튼한 장벽도 뚫고 들어오는 '진격의 거인'이 아니다. 직접 뚫고 들어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에, 문을 열 수 있는 내부직원 PC를 해킹하여 마치 '정상적인 접근'처럼 보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아무리 튼튼한 철벽도, 문지기 몇 사람이 출고 있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결국 보안은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의 보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이미 공시사항을 통해 부딪힌 내용을 재방송 하려면 1.편집실에서 USB/외장하드 사용 시, 파일복사 전 백신 검사(개인용의 USB사용은 NO!) 2.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서핑 금지(악성코드가 여기를 통해 들어와요~) 3.제목이 의심스러운 메일은 읽지 말고 바로 삭제하기(악성코드 포함률 99%) 글을 작성하고 나니 마치 공익광고 같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어떡하랴. 청은 점점 더 예리해지니. 방패도 점점 더 두꺼워 질 수 밖에. 경영자본부 TV기술팀 박민욱